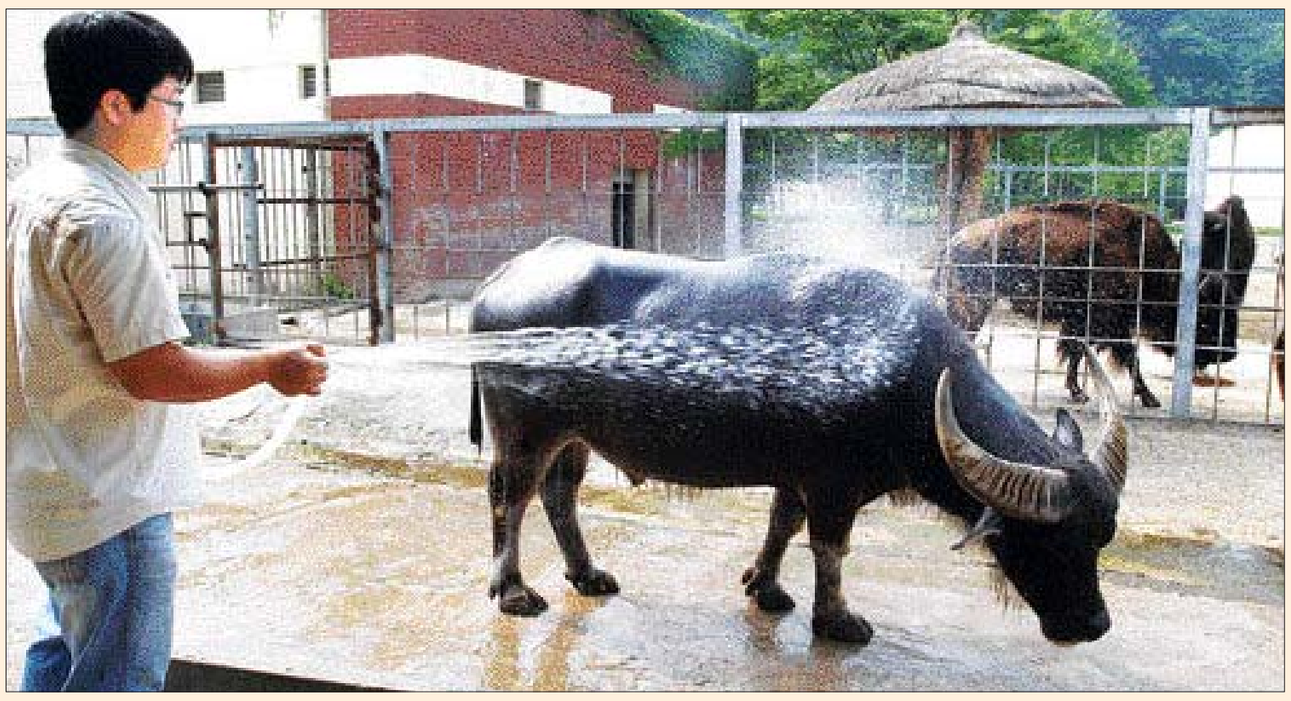
광주 우치동물원의 '여름나기'



광주우치동물원 사육사가 17일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자 물소에게 물을 뿌려 샤워를 시켜주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불곰 "먹이는 통째로 얼려서 주세요"

물소 "더위엔 역시, 샤워가 최고"
펭귄 "풀장에 얼음 띄워줘야 놀죠"
원숭이 "여름엔 수박이 맛있어요"

냉대기후인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온 에조 불곰(Ezo Brown Bear)은 여름이 가장 두렵다. 서늘한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위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먹이를 줘도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많다.

동물원 사육사들은 이런 에조 불곰에게 일주일에 한 번 먹이를 통째로 얼려주는 특식을 제공한다. 사과·수박 등 과일과 감자·양배추, 닭고기 등을 얼려서 넣어주는 날이 되면 더위에 지쳐 꼼짝도 않던 불곰은 정신없이 먹어치운다.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주우치동물원이 동물들의 여름나기를 도와주느라 비상이다.

닭이나 토끼 등 스스로 피서법을 터득한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이 불볕더위에 그대로 두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닭은 땅을 약 20㎝가량 판 후 들어가 앉는 방법으로 피서를 한다. 토끼는 뒷발로 땅을 1m 가량 판 후 들어가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의 왕자인 사자와 호랑이라 할지라도 더위에는 맥을 못 춘다. 동물원 측은 식욕이 떨어져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는 이들 사자와 호랑이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1주일에 한번 주던 쇠고기를 두 번으로 늘린다.

사슴·기린 등 초식동물과 물새·꿩 등 조류 90여 종 400여 마리에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이에 섞어서 준다. 더운 날씨에 입맛이 떨어져 먹이를 잘 먹지 않는 동물들에게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다.

원숭이에게는 수박을 특식으로 제공하고, 남아프리카가 고향인 자카스 펭귄에게는 한 달에 한번 얼음 덩어리 5개를 풀장에 띄워주기도 한다.

물소와 미니돼지에게는 한낮에 10분간 물을 뿌려 샤워를 시켜준다. 물개나 하마, 펭귄이 사는 풀장의 경우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준다. 초식동물인 토끼·기린·낙타 등에게는 사육사들이 직접 동물원 근처 산에서 뜯은 생초를 제공한다. 여름철에 건초만 주면, 목이 말라 잘 먹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더위에 지쳐 몸이 약해지면 기생충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 달에 한번 구충제(驅蟲劑)를 사료와 함께 섞어 주기도 한다.

우치동물원은 이번 달 수도요금이 지난달보다 100% 오른 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양식이나 비타민 제공을 늘리면서, 동물들의 식사비용도 지난달보다, 40%가 늘어난 2천500만원을 써야 한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동물들의 여름 건강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자칫 폐사할 수 있어 사육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민들 "고양이를 잡아줘"

쓰레기봉투 파헤치고 할퀴기까지
개체수 급격히 늘어 '민원' 잇따라

주부 박모(3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요즘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를 집 밖에 내놓기를 꺼려한다. 고양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나타나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놓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양이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대문 앞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다"며 "이제는 사람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주택가를 휘젓고 다닌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모(30·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지난 2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고양이에게 봉변을 당했다. 정씨는 이날 밤 10시께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에 종량제봉투를 던졌는데, 이 소리에 놀란 고양이가 도망가면서 정씨의 팔뚝을 할퀸 것이다. 이후 정씨는 쓰레기 수거장에 갈 때면 긴 팔을 입거나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습관이 생겼다.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나도는 고양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이 지역에서 유기된 고양이 수는 94마리에 불과하지만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도심을 떠도는 실제 개체 수는 4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고양이 관련 민원도 지난해 한 달 평균 10건에 머무르던 것이 올 들어서는 100% 증가한 20건에 달하고 있다.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주변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민원을 비롯 ▲쓰레기봉투 훼손 ▲고양이 떼 출현 ▲고양이 울음 소리 ▲유기 고양이 주택 내 잠입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유기 고양이들이 재빠르게 담벼락을 넘나들어 포획이 쉽지 않은데다, 동물학대를 이유로 불임시술마저 중단해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 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도 고양이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 이모(여·47·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쓰레기 배출이 많은 여름철 악취 때문에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고양이를 잡아달라고 구청에 얘기를 해도 '포획망'만 빌려 줄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전국체전 개막행사 고싸움놀이로 장식

제88회 전국체전의 개막행사는 '광주고싸움놀이'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광주시는 17일 "전국체전 개막일인 10월 8일 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광주고싸움놀이'를 연출,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전국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주고싸움놀이'는 고싸움놀이마당, 연합풍물패 길놀이, 국악잔치, 시민대동놀이,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된다.

놀이마당 인근에서는 고싸움놀이 체험학교, 짚풀공예방, 민속놀이마당, 음식나눔마당 등도 펼쳐진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서구에 첫 女高 들어선다

상무지구 '상일고' 여고로 전환키로

상무·금호·풍암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광주시 서구에 처음으로 여고(女高)가 들어선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내 1만2천㎡ 부지에 남녀공학 형태로 건립 중인 가칭 '상일고'를 여고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구나 남구에 비해 서구·북구·광산구의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서구의 경우 여고생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여고가 오는 2010년 서구 쌍촌동 옛 국군병원 자리로 이전하고 상일고가 여고로 전환되면, 서구 거주 여고생들의 통학거리가 대폭 단축되는 등 교육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향교 한문·예절교육

광주향교의 무료 한문·예절교육이 오는 23일부터 8월24일 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은 22일까지 과목(사자소학·추구·학어집·소학·천자문·명심보감·서예·전통예절)을 선택해 광주향교에 등록해야 한다. 수업료는 무료로 수강자는 교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광주향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교육과 예절의 전승 보존을 위해 해마다 여름철 한문·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672-7008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근영 애장품 경매 참가자 적어 실패

'아름다운 나눔장터'에 내놓은 영화배우 문근영(여·20)씨의 애장품 경매가 저조한 참여와 낮은 경매가로 성사되지 못했다.

문근영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애장품인 몽블랑 만년필과 볼펜, 펜 파우치 등 11점을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기원과 불우 운동 선수 및 체육팀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 나눔장터' 행사에 기증했다.

광주시는 애장품 11점 중 4점을 경매에 부치기로 하고, 시가 55만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의 경우 60%가량인 35만원부터 경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제88회 전국체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경매에 고작 3명만이 참여했고, 제시가도 15만원에 그쳤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난치병 어린이 돕기 빛고을 최대 나눔장터'에서 재경매하기로 했다.

/안현주기자 a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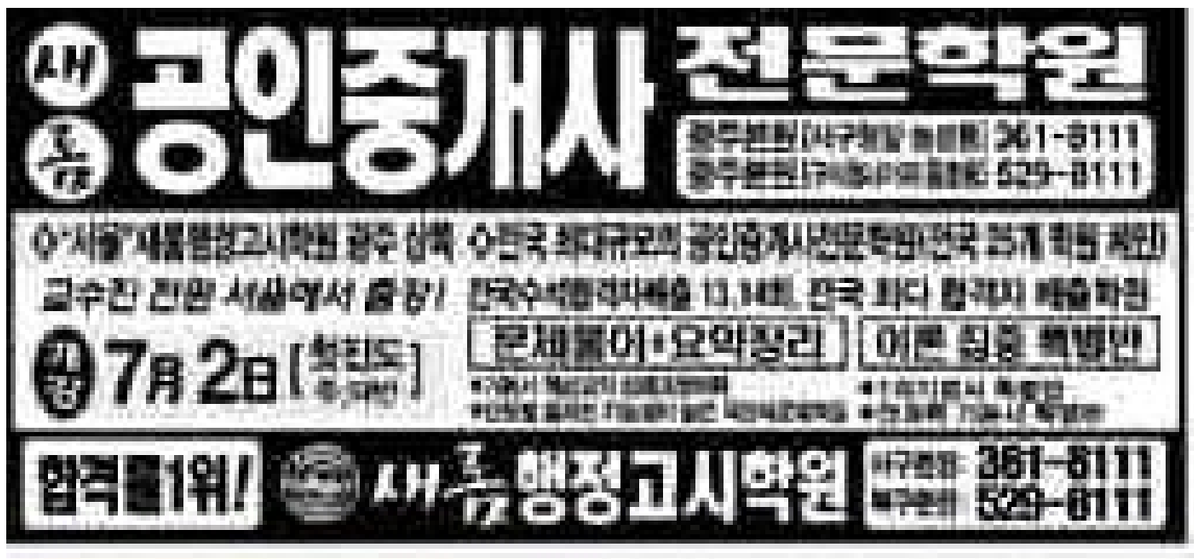
지하철 상무역에 유기농 특판 장터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지하철 상무역에서 진도군 생산자단체와 함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특판 장터를 연다.

이번 장터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밤호박, 옥수수, 오색미 등 최근 웰빙 경향에 맞춘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이 전시, 판매된다.

검정쌀 등 진도특산품 20일까지 사흘간 판매

특히 홍주와 검정찹쌀 등 진도 특산품은 시중가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떡과 찐 밤호박 시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도시철도 공사는 '내고장 특산물 알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참여 희망 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는 공사 사업개발팀(062-604-8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